

# 비판정신으로 서평문화 새 지평 연 독립 매체들

미국의 《키르쿠스 리뷰즈》와 프랑스의 《리르》의 경우

표정훈 | 출판칼럼니스트

서평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 전반의 합리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인맥과 연줄로 뒤엉킨 지식사회에서 서평은 일종의 '립서비스'가 되기 십상이다. 국내에 바람직한 서평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프랑스에는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서평문을 실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서평지가 여럿 있다. 이들 매체는 다양성·독창성·참신성을 기반으로 이상적인 서평문화를 일궈나가고 있다.

이상적인 서평매체란 무엇일까? 독자 입장에서는 올바른 도서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서평매체, 저자 또는 번역자와 출판사 입장에서는 공들여 출간한 책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서평매체, 도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잠재 수요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평매체, 대략 이 정도가 아닐까 한다. 어느 경우든 신뢰성과 객관성이 관건이다.

우리 나라의 주요 신문들은 북색션을 통해 매주 한 차례 다양한 신간 도서를 소개한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매체 광고 이외에 마땅한 홍보 수단을 찾기 힘들고, 독자 입장에서는 신간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드물다. 이런 현실에서 신문 북색션의 영향력과 책임은 상당히 크다. 그러나 국내 북색션은 아직 본격적인 서평문화의 지평을 열지 못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고답적인 서평문화를 반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인터넷상의 다양한 서평매체들

미국의 경우,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평지로 《키르쿠스 리뷰즈(Kirkus Reviews)》가 있다. 한 해에 대략 4천5백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어린이 도서 포함)를 다루는데, 약 250~300단어로 이뤄진 무척이나 날카롭고 객관적인 서평문이 인상적이다. 아마존을 비롯한 대표적인 온라인 서점들에서도 이 서평문을 각별하게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판사에서 가제본 상태로 보내온 책을 바탕으로, 출간 두세달 전에 서평을 작성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도서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무척 유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인문사회 분야, 교양 및 학술 도서에 대한 서평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 서평지에서 호평을 받은 저자는 자신의 홈페이지나 경력 소개란에 그 사실을 사뭇 자랑스럽게 기록해 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독료가 만만치 않지만, 한달에 두번 발간되는 이 서평지를 구독하려면, [kirkusrev@kirkusreviews.com](mailto:kirkusrev@kirkusreviews.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하면 된다.

미국의 서평문화를 말하면서 《뉴욕타임즈 북리뷰》를 빼놓을 수는 없다. 공신력과 권위 측면에서 《뉴욕타임즈 북리뷰》는 단연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됐는데,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무료이기는 하지만 접속절차가 성가시게 느껴질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www.nytimes.com/books/00/05/28/home/contents.html](http://www.nytimes.com/books/00/05/28/home/contents.html)

[partners.nytimes.com/books/00/05/28/home/contents.html](http://partners.nytimes.com/books/00/05/28/home/contents.html)

처음의 URL로 접속하면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웹 페이지가 뜬다. 그러나 [www.nytimes.com](http://www.nytimes.com)에 [partners](http://partners.nytimes.com)가 들어가 있는 URL로 접속하면 곧바로 2000년 5월 28일자 내용을 볼 수 있다. 참고로 《뉴욕타임즈 북리뷰》 온라인판은 매주 일요일자

로 업데이트된다. 위의 두 URL 가운데 아래 것을 북마크해 놓고 날짜(숫자) 부분만 매주 바꿔가며 보면 된다.

프랑스의 경우, 유력 일간지 《리베라시옹(Liberation)》의 북색션([www.liberation.fr/livres](http://www.liberation.fr/livres)), 잡지 《렉스프레스(L'Express)》의 북색션([www.lexpress.presse.fr/Livres](http://www.lexpress.presse.fr/Livres)), 그리고 1966년에 창간된 문학 전문지 《마가진 리테레르(Magazine Litteraire)》 등이 서평매체로서 특기할 만하다. 《리베라시옹》은 진작부터 문화 부문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했지만, 도서 정보의 경우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마가진 리테레르》는 한달에 한번 특정 주제 또는 한 작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여러 학자들의 논문으로 특히 유명하다. 아쉽게도 논문 전부를 온라인([www.magazine-litteraire.com](http://www.magazine-litteraire.com))에서 볼 수는 없지만, 논문 서문과 차례를 볼 수 있으며 관련 사이트가 링크돼 있다. 그 달의 분야별 선정도서 목록을 제공하며, 그 가운데 몇몇 책에 대한 간략한 서평을 볼 수 있다. 온라인 자료는 1997년 9월 호부터 제공하고 있다.

## 《리르》, 비판적 서평정신의 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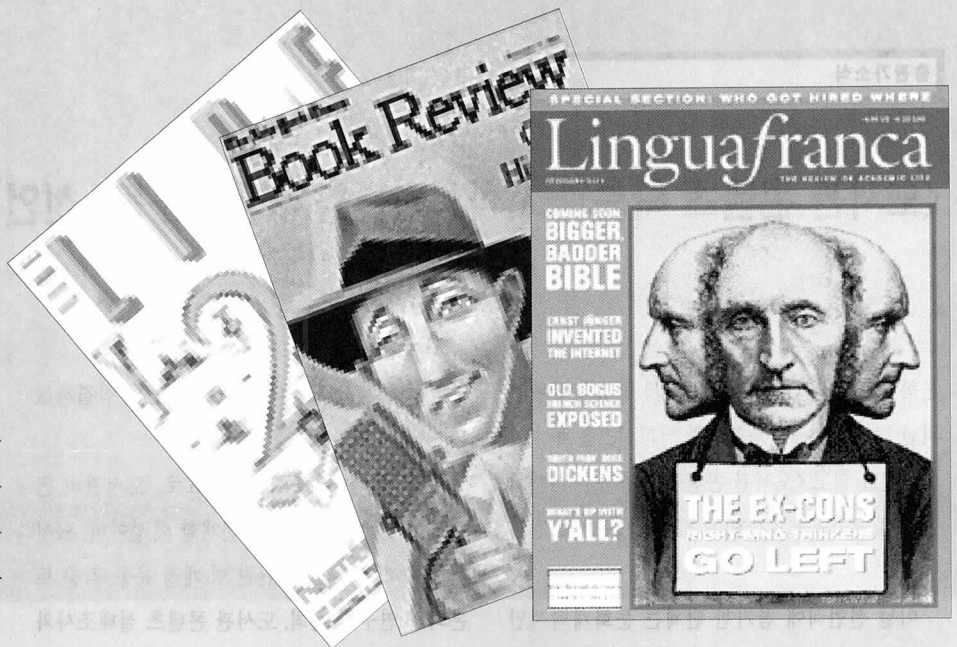
그러나 프랑스의 독서인들에게 가장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 서평매체는 '독서' 또는 그냥 '읽다'를 뜻하는 《리르(Lire)》지다. 1975년에 일반 독자들에게 신간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창간된 월간지 《리르》는, 어렵지 않은 내용과 구성으

로 책 및 독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홈페이지(www.lire.fr)를 통해서도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신간 정보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문학 동향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 독립적인 서평매체로서 《리르》가 지향하는 정신을,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전기 작가이자 소설가인 피에르 아술린느(Pierre Assouline)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어 말하고 있다.

“192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유력 일간지의 이사들이 모여 그 신문사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인 알베르 롱드르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가 쓴 기사를 실을 수 없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기사가 신문사의 ‘노선’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롱드르 기사는 그 기사를 집어들더니, 자신의 모자와 지팡이를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문을 닫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기자에게 한가지 노선 외에는 없다는 것을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기껏길처럼 하나로 곧게 난 노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판정신과 논조의 무한한 자유 속에서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에 기초해 자신의 글이 읽히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문화적 상상력과 직업적 소명이라는 자신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겠다는 독립성의 선언,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리르》는 다양성, 독창성, 참신성을 확보하면서 독립 서평지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서평 이외에도 《리르》는 출판계는 물론 문화계 전반에 파문을 일으킨 기획기사들로 유명하다. 그런 기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작가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1981년 5월), 〈에이즈와 작가〉(1984년 6월), 〈프랑스 독서 인구는 어디로 갔는가?〉(1988년 11월), 〈쿠크르 상의 내막〉(1991년 11월), 〈작가와 동성애〉(1992년 11월) 등을 들 수 있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거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서평지 역할에도 충실한 미국의 종합 교양학술지 《링구아 프랑카》(www.linguafranca.com)는 온라인 서점 반즈앤노블닷컴에 학술도서 서평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반즈앤노블닷컴의 영업 전략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에듀커머스’ (EduCommerce)



독립적인 서평매체는 인맥과 연출로 뒤인진 지식사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에는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서평문을 실는 것으로 정평이 난 잡지가 여럿 있다. 왼쪽부터 프랑스의 《리르》, 미국의 《뉴욕 타임즈 북리뷰》, 《링구아 프랑카》의 표지 사진.

즉 교육적 효과가 높은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더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함으로써, 수익모델의 집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개념이다. ‘재미있지 않으면 인터넷이 아니다’는 광고 문구도 있는 모양이지만, 에듀커머스는 기본적으로 ‘배울 수 없다면(또는 가르칠 수 없다면) 인터넷이 아닙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 문화집단의 자정능력과 서평문화의 관련성

미국과 프랑스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독립적인 서평매체를 국내에서는 어렵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 확대는 독립적인 서평 매체의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매체의 제작 및 유통 비용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신뢰성, 객관성, 독립성, 그리고 이런 미덕을 지키면서도 많은 독서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획과 내용, 여기에 다시 충실한 재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리르’를 접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서평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 전반의 합리성, 바꿔 말하면 인맥이나 연출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투명하지 못한 사회에서 서평은 ‘립서비스’ (말치레 인사)가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 서평과 합리적인 사회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실례로, 피에르 벨의 《역사비평사전(Dictionnaire historique et critique)》이 있다. 신

교도에 대한 박해를 피해 종교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넓은 네덜란드로 망명한 그는, 가톨릭의 관점에서 집필된 루이 모레리의 《역사대사전(Grand dictionnaire historique)》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평하는 글을 쓰고자 했고, 그 계획이 확장돼 결국 새로운 사전을 집필했다. 그의 글은 비판적·회의적 정신의 정수로 평가받으면서, 계몽주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볼테르는 벨을 가리켜 ‘계몽주의의 병기고’라 일컫기까지 했다.

“서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출판사가 개최한 서커스 공연의 호객꾼들이다.” 재치 있는 경구로 유명한 미국의 의사이자 작가인 오스틴 오말리의 말이다. 지나치게 비꼬는 감이 없지 않지만, 서평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경구로 충분하다. 객관적인 서평문화 정착 여부는 문화의 자정능력,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